



하이다이빙, 조선대 백악을 날다 17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하이다이빙 경기장에서 한 선수가 훈련하고 있다. /특별취재단 =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드레셀·러데키…수영 슈퍼스타들 왔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경영 종목이다. 지구촌 최대 수영 축제인 이번 대회에서는 21일부터 경영 종목이 일제히 시작된다. 42개 금메달이 걸린 경영 개막이 임박하면서 세계 수영계 슈퍼스타들이 속속 광주에 집결하는 등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 언론의 눈길도 광주에 쏠리고 있다.

42개 금메달 걸린 경영 개막
세계 주요 언론들도 축하
한국 김서영·임다솔 광주로

〈관련기사 2·3·4·15·22면〉
경영종목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경영대표팀은 17일 오후 전세기를 타고 무안 공항에 도착했다. 3개 대회 연속 자유형 400m·800m·1500m 우승한 '수영여제' 케이티 러데키와 2017 부다페스트세계수영선수권에서 7관왕에 오른 카일럽 드레셀(23)이 비행기 트랩에서 내렸다. 언론은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카메라에 담았

다. 사실상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이들의 각축장이기 때문이다.
러데키와 드레셀은 새 역사 쓰기에 나선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통산 여자 선수 최다 금메달리스트(14개)인 러데키는 자유형 400m·800m·1500m 3개 종목 4연패에 도전한다. 드레셀은 마이크 펠프스가 보유한 단일 대회 최다관왕 타이 기록(7관왕)을 세우고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이번 대회에서 몇 개의 메달을 차지할지가 세계인의 관심사다.
'인어공주' 김서영(경북도청, 우리금융그룹)과 임다솔(여·아산시청) 등 26명의

한국 경영 대표들도 이날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에 입촌했다.
2017 부다페스트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인혼영 200m 종목에서 6위를 기록한 김서영은 오는 21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리는 개인혼영 200m에 출전한다. 김서영은 다이빙 김수지(울산시청)에 이어 한국의 두번째 메달을 노린다.
'마린보이' 박태환의 라이벌 쏘양(중국)도 지난 14일 다른 경쟁자들보다 일찌감치 입국했다. 그는 지난 16일 오후 남부대 시립국제경기장에서 몸을 풀었다.
/특별취재단=김한영 기자 young@

금남로~조선대…시민 5000명 '광주 평화 손잡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광주평화손잡기' 행사가 18일 오후 6~7시 광주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까지 2.5km 구간에서 시민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다고 광주시가 17일 밝혔다.

지난 4월 열린 '비무장지대(DMZ) 평화 손잡기' 행사의 연장선에 있는 행사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광주 시민의 뜻을 모아 추진된다.

광주YMCA 등 지역 5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광주평화 손잡기'가 행사를 주최한다. 오후 6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평화선언문 낭독 등 간단한 기념행사를 열고, 7시 정각에 맞춰

한반도 평화 위한 인간띠
오늘 오후 6~7시 열려

시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평화의 인간띠'를 잇는다. 평화의 인간띠가 이어지는 거리에선 풍물길놀이, 노래 공연 등 문화행사도 예정돼 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평화당 非당권과 의원 등 10명 '대안정치연대' 제3지대 신당 창당 선언

정계개편 움직임 구체화

민주평화당 비(非)당권과 의원 10명이 17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연대)를 결성하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대안정치연대 대표인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안 세력들을 묶어가면서 제3지대 신당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당 창당 로드맵에 대해서는 "가급적 오는 9월 말 (제3지대 신당의) 출범을 매듭짓고 나가야 한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과 내년 1월 한 번 더 변화하는 2단계에 접어들고 총선에 임박해서 3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사실상 분당(分黨) 수순 아니냐는 지적에 유 원내대표는 "분당으로 볼 일이 아니다. 새로운 제3지대 정당으로

의 전환을 위한 몸부림"이라며 "신당에 반대하는 분도 설득해서 평화당 전체가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탈당은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대안정치연대에는 유성엽 원내대표, 박지원·김종화·윤영일·이용주·장병완·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과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지단 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전날 밤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대표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안정치연대를 결성했다.
한편, 이날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는 평화당의 주인은 당원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와 관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국의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상임고문단 등과의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으로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평화당 내부의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태풍 '다나스' 북상…오늘 150mm 물폭탄

광주수영대회 영향 '우려'

18일 밤까지 광주·전남에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19일부터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전망돼 인명 피해 예방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물폭탄 수준의 장맛비와 북상하는 태풍 경로를 고려하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19일까지 흐리고 비가 내릴 것"이라고 17일 예보했다. 18일 밤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100mm이며, 산간지방 등 지역에 따라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높다고 광주기상청은 전했다.

19일부터는 제 5호 태풍 다나스(DANAS)의 영향권에 들어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3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북동쪽 약 570km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태풍은 오는 19일 새벽부터 광주·전남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19일 이른 새벽부터 20일 아침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며, 태풍 영향 전에도 물폭탄 수준의 장맛비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24일까지 조선대에서 치러지는 하이다이빙(높이 27m) 경기는 기상이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18~19일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바다)에서 치러지는 오픈워터 수영경기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선수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제수영연맹 경기기술위원회가 일정 조정 등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정병호 기자 kh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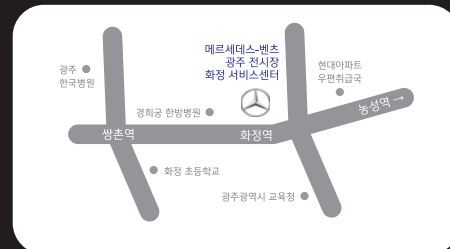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평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